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호·경비 분야의 안전·위기관리 방안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위기관리 대응 방안)

김은정* · 왕석원**

〈요 약〉

국제행사에 있어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대상이 점차 특정인물이 아닌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행사 관람객이나 참가국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주최국에서는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안전 및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최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각종 국제 행사를 많이 개최해 온 우리나라지만 국제행사에 테러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 및 위기관리 부분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하여 더 이상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을 버리고 동계올림픽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테러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대테러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며, 둘째, 평창올림픽 안전주체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셋째, 민간 경호·경비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넷째, 민간 경비인력 및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강화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창동계 올림픽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최될 국제행사에 안전 및 위기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제행사, 테러단체, 위기관리,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 대책

* 여주대학교 스포츠·경호과 외래교수 (제1저자)

** 여주대학교 스포츠·경호과 교수 (교신저자)

목 차

- | |
|---|
| <p>I. 서 론</p> <p>II.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개요와 안전·위기관리의
중요성 및 국제행사 안전 위협요소</p> <p>III. 국제 행사 안전위험의 국내외 사례</p> <p>IV.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호·경비 위기관리
대응방안</p> <p>V. 결 론</p> |
|---|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경제규모와 국가경쟁력의 성장에 따라 체육·예술·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의 각종 국제 경기 및 국제 행사를 포함한 규모가 큰 행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행사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대내·외적으로 현대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개최국의 경제발전이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옥광, 김재수, 2011; 남재성, 강남수, 2012).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인 메가 스포츠행사는 개최지뿐만 아니라 개최국의 정치, 경제, 관광산업 등 많은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itchie & Smith, 1991). 이에 올림픽 등을 포함 국제적인 스포츠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매개로 기대되는 국제 이미지 급상과 잠재적인 이익 및 가치를 여러 국가 및 지역들이 인식함으로써 막대한 양의 투자비용과 인력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스포츠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박상원, 김태희, 장경로, 2008).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세계 4대 스포츠 행사를 전부 개최한 세계에서 6번째 나라로 기록된다. 또한 86서울 아시안게임, 92대전 엑스포, 2002 부산 아시안게임, 2010년 G20 서울 세계정상회의, 2012년 여수 엑스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많은 국제행사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행사를 마무리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명실상부한 스포츠를 비롯하여 국제행사의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결과와 평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안전하게 행사를 치루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경찰력을 비롯한 공권력과 함께 민간경비력을 다수 동원하여 안전사고 및 테러에 대응해 왔기 때문으로 오히려 행사기간 동안에 범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서는 지속적인 안전에 대한 다양한 위협 요인도 내포하고 있어서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는 경비 및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안전에 대한 위협은 과거와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안보에 대한 패러다임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테러리즘의 변화로 위협의 정도가 가각화되어 특정 집단의 위협세력을 국한할 수 없을 뿐 요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북한에 대한 테러도 대비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남재성, 강남수, 2012).

많은 군중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동계올림픽에서는 정치·사회·경제 부분 등 다방면에 걸쳐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며 각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이념 등과 같은 각종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제 행사 및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성공적 개최 결과 만족하고 안심하여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난 행사에 미흡한 점을 다시금 되짚어 봄으로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것이다.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여부는 많은 부분에서 장기간의 준비와 예산을 들여 좋은 시설을 만들고 좋은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경기장 완공 및 경기진행 부분이 중요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 행사기간 중에 테러로 인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행사 자체가 실패로 끝날 수 있고 많은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기 때문(박동균, 신익주, 2007)에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는 안전과 보안 즉, 안전위기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를 통해 기획된 올림픽의 최종적인 성공여부는 안전문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행사 기간 중 테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이상철, 권정훈, 2004).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참가자와 모든 사람에 대한 안전 확보는 개최국은 물론이고 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한 참가국 전체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서는 철저한 대회준비 때문에 자연작기술적 원인에 의한 재난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였으나, 개최국의 사회·경제적 불안과 국제정치 및 종교적 원인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와 계획된 범죄의 발생에 따른 위험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IS집단의 테러위협과 또 다른 집단의 테러 위협 등 안전 위협 세력으로 인한 국제행사를 계기로 자신들의 의사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대규모 조직을 통한 범행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질서 혼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남재성, 강남수 2012).

따라서 국제 행사 중에서도 단연 큰 행사로 손꼽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안전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고, 경호경비분야의 안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경호경비 분야의 안전·위기관리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개요와 안전위기관리의 중요성 및 국제행사 안전 위협요소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개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적 대회 개요로 대회명칭은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이며, 대회기간은 □2018년 2월 9일 - 2월 25일(총 17일간)이고, 장애인 동계올림픽은 □2018년 3월 9일 - 3월 18일 (총 10일간) □으로 설정되었다. 대회 장소는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30분 이내의 동계스포츠벨트 범위 내에서 개최 된다.

〈표 1〉 2018평창동계 올림픽의 대회 개요

구 분		내 용
대회명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기간		2018년 2월 9일 ~ 25일(17일) 예정
개최장소		평창 알펜시아 및 30분 이내 동계스포츠벨트
경기장 13개 경기장 (기존 7개, 신설 6개)	알펜시아 클러스터 용평 보광 강릉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스켈리톤 알파인(회전, 대회전)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스피드, 피겨, 쇼트트랙, 컬링, 아이스하키
참가규모		80여 개국 선수, 임원, IOC, 취재진 등 2만6000명 추정
경기종목		7경기 15종목 86세부종목
패럴림픽 올림픽		2018년 3월 9일 ~ 18일(10일) 예정

설상경기(알펜시아·용평·보광·중봉 스키장)에서 개최되며, 빙상경기(강릉)에서 스피드, 피겨·쇼트트랙, 컬링, 아이스하키 경기가 개최된다. 참가규모는 약 80여 개국 선수와 임원 그리고 IOC패밀리와 취재·보도진 등 약 2만 6천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기종목은 7개 경기 15종목 86개 세부종목으로 구성된다.

[그림 1]과 같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관련 알펜시아 클러스터(평창)는 서쪽 산악지역에 위치하며, 대부분의 설상경기장, 선수촌, IOC본부호텔, 올림픽스타디움, 국제방송센터(IBC)와 메인프레스센터(MPC), 미디어존이 설치된 모든 올림픽 활동의 거점 중심지역의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코스타(Coastal) 클러스터(강릉)는 동쪽 해안지역에 위치하며, 모든 빙상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존이 설치된 모든 빙상 활동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한다. 다음으로 2개의 독립 경기장인 알파인(스피드) 경기장은 올림픽 경기장으로부터 30분(45Km)거리인 중봉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리스타일과 스노보드경기는 올림픽 경기장으로부터 30분(44Km)거리인 보광 휘닉스 파크에서 열리기 된다.



[그림 1] 2018 평창올림픽 경기장 개요

2. 국제행사의 개념 및 안전 위기관리의 중요성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문화체육관광부 법령자료, 2014). 이러한 국제행사는 국가 간의 융합과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적으로도 대회를 개최하는 자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주요영역으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국제행사의 긍정적 효과를 누리하고자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대규모 국제행사의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으나 국제행사의 유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욱 중

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 활동에 대한 대비, 즉 안전관리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김용현, 박용주, 2011).

올림픽 및 국제행사에 있어서 안전관리대책이라 정의되는 것은 올림픽대회 및 국제행사 개최국 내·외부에 산재한 인적 취약요소·물적 취약요소·지리적인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와 경기장 내·외곽 시설물에 대한 테러예방을 위한 폭발물 탐지 제거 및 안전점검과, VIP와 선수 및 관람객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에 관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김두현, 2001).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의 안전대책은 대회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즉, 어떠한 행사든 안전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안전위협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이 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압하여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 행사 운영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둘째, 빈틈없이 준비된 안전대책을 통해 경기장 내부·외부의 질서유지와 국내외 VIP, 선수단, 관람객 등 모든 참여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이는 곧 국가적 위상 향상과 국위선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보여지는 안전대책 및 안전관리는 그 나라의 안보 능력과 위기관리 및 대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앞으로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해서 빅 스포츠 이벤트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최된 바 있는 많은 국제 행사 유치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된 부분이 남북관계와 북한에 의한 지속적인 안전위협이다. 넷째, 안전 확보를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남재성, 강남수, 2012).

많은 학자들은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의 국제행사에 있어서 안전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최응렬, 2004).

첫째, 대규모 국제행사에 있어서 최대의 서비스는 안전 확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라 하더라도 사고를 비롯해서·전쟁과·무

질서·테러 등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자하는 안전 욕구는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안전한 국제행사 개최는 각 국가 간의 관계유지 및 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에 중대한 역할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안전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은 경제난 극복과 그 나라의 경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림픽을 포함한 많은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경제적인 기대효과로 국제무대에서 개최국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제고되고 사회통합과 국민적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비계량적 유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넷째, 경기장 질서유지와 VIP·선수·관람객들의 신변안전 보호를 통해 국위선양과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국제 행사의 안전 위협 요인

1) 국제적인 테러 조직에 의한 테러 위협

테러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위협과 공포의 수단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방법을 동원한 반인류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무 차별성이 내제되어 있는 수단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위협은 누가 될지 모르는 공포감을 포함하고 있는 나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태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테러라는 것은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특정다수로 인식되어지고 있어서 인간 개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를 불안감과 불안정하게 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포를 확산시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와 전 세계를 위협하게 하여 사회와 국가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이다(정진호, 유광희, 2013).

이러한 테러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 세계인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 행사 및 올림픽 등은 전 세계적인 주요 행사이기에 테러를 자행하여 충격을 가하게 되면 테러공포를 확산시키는 물론 테러단체와 테러범들이 노리는 테러의 최종 목적인 종교 민족분쟁의 대립 부분에서 정치적 이슈를 TV나 언론매체 등으로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테러범의 의도를 알릴 수 있는 크나큰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북한의 위협

지금까지 북한은 전쟁 이후 줄곧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국내요인 암살, 어선 및 민간인 납치, 항공기 납치 및 폭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대남 테러리즘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특히 60년대 후반부터는 전 세계 29개국에서 반정부 학생시위 선동, 폭동, 배후조종, 국가원수 암살교사 등 반정부 세력에 의한 정부 전복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테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북한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각종 사건 및 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이 직접 즉,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테러리즘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변함 없는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 최고 지휘자의 전체 지휘 아래 전문적으로 훈련된 특수 공작요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 자금지원, 훈련지원, 전략, 전술 및 작전에 이르는 조직적 행동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북한의 직접적인 사건 및 테러리즘의 주요 대상은 남한에 중요인물로 한정되고 있다.

북한의 궁극 목적이 한국 내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의 국가적인 혼란조성에 의한 국력 소멸과 미국 내의 여론을 악화시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대한 저지 및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국제혁명 역량강화를 위해 폭력적인 수단에 이용되는 물품의 해외 수출이다. 북한은 1960년 중반부터 적화통일 전략의 일환으로 무력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국제적 역량을 확대시키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36개국 56개 테러 조직 및 제3세계 반정부 단체들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하였다.

그 동안 북한 정부가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적대적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대중의 동원과 지속적인 공격적 행위를 통해 전쟁 발생에 대한 긴장과 위기감을 조성시켜온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여러 가지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높는데 그 이유는 첫째, 한국은 테러리즘의 지원국가인 북한과 여전히 대립하고 있으며, 북한이 아직도 그들의 대남 정책 목적인 적화통일의 사고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천명하는 대남 테러리즘 활동을 그들의 대외 정책의 한 수단으로 선택하고, 테러리즘 활동의 초점을 한국의 국민과 한국사회에 맞추고 있다(오테곤, 2006).

Ⅲ. 주요 국제행사 안전위협외의 국내 · 외 사례

1. 외국 사례

1) 1972 뮌헨올림픽

뮌헨 올림픽 참사 혹은 뮌헨 학살로 명명된 본 사건은 1972년 9월 5일 독일(당시 서독)의 도시 뮌헨에서 개최된 하계 올림픽 기간에 일어난 테러사건으로 테러 단체인 검은 9월단이 11명의 이스라엘 올림픽 팀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테러 미숙한 진압으로 인해 대표 팀 전원이 살해된 사건이다(위키 백과, 2016).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분쟁에 따른 결과로 치부할 수 있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대회를 개최한 당시 서독정부의 안전 확보 대응력의 부재에 따라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남재성, 강남수, 2012). 그리고 인질범들에 대한 저격 실패가 피해를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정보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초기부터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작되었다. 독일 측은 테러리스트들의 숫자를 5명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8명이었고, 테러리스트 수가 8명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파악은 하였으나 이 정보는 공항의 저격 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당시 독일 경찰에는 대테러를 담당하는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촌에서의 진압 작전에는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경찰들이 투입되어 인질 전원이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올림픽 사상 가장 충격적인 안전위협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테러리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특히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에서의 안전 관리와 안전 확보는 행사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1996 애틀랜타 올림픽

애틀랜타 올림픽 폭탄 테러 사건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기간 중인 9일째인, 7월 27일 전직 미군 폭파 전문병이던 에릭 로버트 루돌프(Eric, Rudolf Robert)가 애틀랜타 올림픽공원 콘서트장 내 벤치 아래에 파이프 폭탄 3개가 든 가방을 설치한 후 폭발 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공원에 있던 사람 중 1명이 폭탄 속에 든 못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폭발충격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그로 인해 당시 공원에 모여 있던 많은 인파 중에서 약 1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사건 직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긴급회의 끝에 사건이 발생한지 2시간 반 만에 경기를 계속 지속하기로 결정하여 대회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올림픽 대회기간 동안 테러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었으며 평화를 유지하는 올림픽의 이미지가 아닌 지나친 상업주의 올림픽이었다는 비판과 더불어 애틀랜타 올림픽은 실패한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황덕준, 1996).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는 대회의 안전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관련 기구간의 협력 부재와 보안의식 결여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보안 당국 간 안전관리 운영을 통괄하는 부서의 부재로 인해 기관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건초반 신속한 진압을 하지 못한 것도 중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 보안 당국은 대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엄격한 몸수색을 통해 위험인물과 특정인물의 올림픽 공원 입장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남재성, 강남수, 2012).

3) 2004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아테네올림픽은 2004년 8월13일부터 8월29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었으며 28개 종목 301개 경기에서 총 201개국의 10,625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아테네 올림픽 개최 당시에는 많은 테러의 위협이 있었는데 9·11테러와 스페인마드리드 열차테러 등 여러 테러의 위협으로 인해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테러에 대한 위협이 크게 부각된 시기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테네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4년 전 시드니 대회 때의 3배에 달하는 2억 7,800만 유로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오혁중, 2004).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각종 테러의 위협과 알카에다의 테러위협을 우려하여 국제올림픽 보안조언그룹(IOUSAG)의 계획 아래 1,320여대의 스파이 카메라와 마이크로폰이 컴퓨터 감시 네트워크(SAIC;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에 연결되어 각국의 테러리스트 언어를 분석했다. 또한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기타 서방국가의 공군과 해군을 파견하고 그리스의 영공과 영해를 감시하는 등 인력중심에서 하이네트워크 중심으로 테러 대책 안을 강구했다.

보안인력의 규모에 있어서도 시드니 올림픽보다 4배 많은 5만 여명의 경찰과 군

병력이 투입되었다. 특히, 그리스 정부는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이스라엘 등 7개국으로 구성된 특별 보안자문 그룹과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테러위협에 대처하였으며,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 이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군사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보안을 총괄할 수 있는 전자감시시스템인 ‘C4I 통합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감시카메라, 경비보트, TV수상기, 기타 모니터링 제품들을 아테네 전역에 설치하여 감시하였다. ‘C4I’이라고 명명된 전자 감시시스템은 293개의 감시카메라로 아테네 시(City) 전역을 샅샅이 살펴 소위 보이지 않는 눈이라고 불렸다(연합뉴스, 2004).

4) 2006년 독일월드컵

2006년 독일월드컵은 무색·무취 위험물의 검출과 제거의 무인화를 시작하였다. 테러활동이 더욱 교묘해지고 정교해지면서 단순 폭발물이나 총기류를 사용하는 테러 행위보다 더욱 위험한 핵, 독성화학물질, 전염성 병원균 및 자살폭탄 방식이 점차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중심의 검문검색으로는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Robowatch사는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감시 뿐 아니라 핵, 독성화학물질, 미생물 등을 검출할 수 있는 ASENDRO감지기와 궤도 이동형 ‘OFRO’ 로봇을 개발하여 행사 기간 중에 테러예방에 적용하였다.

5) 2008 베이징 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은 2008년 8월8일부터 8월24일까지 17일간 중국의 베이징에서 되어 204개국 10,942명이 참가하였다. 당시 중국은 52개 항목으로 구성된 올림픽 보안 종합계획과 500여개에 이르는 구체적 실시방안을 사전에 정립하여 시스템화한 바 있다(김명신, 2008).

애틀랜타 올림픽 테러 이후 베이징 올림픽에서 테러단체에 의해 미국의 배구단이 급습을 당해 인명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있었다. 또한 베이징 근처에서 폭탄테러를 당해 두 명의 사상자가 생긴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올림픽 대참사로 인해 IOC는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과 경각심을 최고조로 강조하였고 대회 개최국인 중국은 안전 관리 및 보안 예산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테러 안전 및 대회의 안전관리 방법으로 참가 선수의 증명사진은 물론 상세 여권정보와, 전화번호, e-mail 등이 기록된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스캐너를 사용하여 즉시

참가자 전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RFID/USN 응용 유비쿼터스 방법을 사용하였다.

6)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도 각종 테러의 위협과 테러리즘으로 인한 안전문제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경기였다. 2013년 말에 러시아에서 연달아 발생한 폭탄 테러와 러시아의 분리를 요구하는 체첸의 무장단체인 ‘검은 과부(Black widow)’의 잠입 등 유럽 각국 올림픽 위원회에 전달되는 각종 테러 관련 협박 메일로 개최국 러시아를 비롯해 각국 선수단 및 관계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줬다. 이에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알렉산데로 주코프 위원장이 직접 나서 올림픽 안전에 대비한 예비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하며 “위협에 신경 쓰지 말라”고 불안감을 잠재우는 발표는 노력을 했다. 또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올림픽 기간 내에 테러 문제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소치를 중심으로 가로 70km, 세로 100km의 구역을 ‘강철 고리(Ring of steel)’라고 부르고 특별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5만 명의 경찰과 연방보안요원을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안전대책 활동으로 인해 사용된 비용만 약 20억 달러(약 2조 1,500억 원)에 달했으며, 각종 테러에 대한 보안뿐만 아니라 테러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 큰 금액을 지불하고 올림픽 책임보험(Olympic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영국은 테러 혹은 자연 재해로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중계권료, 입장료, 스폰서 등의 엄청난 액수의 금전적 손해 및 인명 피해를 대비해 올림픽 책임 보험을 \$170million(약 1조 3천억)이라는 돈을 주고 가입했다. 이는 단순 안전관리 및 보안 부분에만 쓰는 비용이 아닌 추가적으로 투자한 비용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임을 짐작 할 수 있다.

2. 국내 사례

1) 1986년 김포공항 폭탄 테러

김포공항 폭탄 테러 사건은 86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6일 전인 1986년 9월 14일 오후 3시 12분경,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5번 출입구와 6번 출입구 사이에 있던 쓰레기 통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대형 유리창 11장, 형광등 20여 개가 깨졌다. 기물 파손은

적은 편이었지만 인명피해는 컸던 사건이다.

김포국제공항 청사 앞에서 의문의 폭발물이 폭발하여 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서울 아시안 게임 개막을 5일 앞두고 발생하여 아시안 게임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테러로 추측되었으나,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서울아시안게임을 방해하고 중국적으로는 88서울올림픽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 공작원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조선일보, 2009).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폭발을 ‘테러’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일본인 관광객 24명을 연행한 후, 주변을 수색했지만 뚜렷한 용의 점을 가진 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당국은 물론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까지 합세해 수사를 했고, 당시에 수사당국의 추측은 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이 파견한 테러리스트의 소행 일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확실한 범인을 밝혀내지 못해 결국 범인은 잡지 못하고 ‘영구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09년 3월, 스위스 베른 신문기자인 무라타 노부히코란 사람과 ‘월간조선’에 의해 사건의 전말과 김포공항 폭탄테러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사건의 배후 및 사건의 조종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고, 범행을 지휘한 것은 무슬림 테러리스트인 아부 니달로 밝혀졌고, 테러를 실행한 것은 서독 적군파였다고 전했다. 2009년 제시된 구(舊) 동독 정보기관인 ‘슈타지(STASI)’ 22국의 보고서를 보면 이 사건은 북한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테러를 지시받았으며 팔레스타인계 테러리스트인 ‘아부 니달(Abu Nidal)’의 하부 구성원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테러의 대가는 500만 달러였다(뉴데일리, 2015).

이 사건은 북한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테러사건으로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86 서울 아시안게임이라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인 공항에서 테러행위를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남재성 외 1인, 2012).

2) 1988 서울올림픽

서울올림픽은 1988년 9월17일부터 10월2일까지 대회기간은 총 16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올림픽으로 전 세계 160개 IOC회원국에서 1만3,62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그 당시 최대 규모의 대회였다. 서울올림픽은 종전에 국내에서 개최되었던 많은 대회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로 전국가적인 역량이

총집결 되었다는 점과 빈틈없이 완벽한 안전 확보를 통해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향상 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북한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방해 행위를 계획하여 실행하였으며,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상공을 비행 하던 대한항공 858기 기내에 폭발물이 설치하여 폭발하는 사건을 계획하여 시행하였다(김용현, 박용주, 2011).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당시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에 올림픽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장 통제본부를 설치하여 안전대책에 대한 심의결정과 시행감독 운영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해 국가안전 기획부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법무부, 내무부, 문교부보사부, 외무부, 체신부, 군, 교통부, 체육부, 문공부 장관과 합참 의장, 국군 보안 사령관, 치안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 17명을 위원으로하고 안전통제본부통제 실장을 간사로 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 조직 아래에는 안전대책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심의 처리하여 안전대책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두었다.

3) 2002 한일 월드컵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협요소를 미국의 9. 11사건 이후 ‘테러와 의전쟁’에 따른 알카에다 잔존 세력과 전 세계의 여러 테러 조직의 보복테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경기장 안팎에서의 홀리건들의 폭력 난동 및 대규모 관중들의 운집과 한일 양국 20개 도시 간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해 모든 대회 운영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테러 위협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유형별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안전대책 통제본부는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출입문을 개방하였으며 경기장 진입로에서부터 관람석부분과 외곽 300미터~800미터에 이르기까지 총 4단계 검색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출입자에 대한 입장권과 AD카드 위조여부 조사 및 소지품에 대한 정밀 검색을 실시하였다. 2002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에 안전 활동은 「2002년 월드컵 대회지침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범정부차원에서 안전 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되었다. 이에 각자 안전기관들 사이의 모든 안전 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테러나 홀리건 난동 등의 안전위협 요소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 하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안전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된 월드컵 안전대책위원회의 전체 지휘 하에 전반적인 실무를 처리하기 위한 안전대책 통제본부와 안전통

제실이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며 안전통제실 소속에는 출입국대책반, 신변보호대, 보안정보 활동팀, 경기장경비대, 교통 관리대 등으로 하위 조직이 세분화 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효과적 안전 활동을 위해 경찰 특공대 및 특전사 군인 등이 임무를 수행 하였다(김태민, 2006). 당시 경찰당국은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월드컵치안대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2000년 1월 31일 경찰청에 월드컵 기획단을 편성하였고 2001년 2월 10개 지방 경찰청에 월드컵 전담부서를 조기에 편성하여 안전 관리 및 안전 담당 부서를 확보하였다.

4)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제 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4일까지 총 9일간 대구광역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역대 대회중 최대 규모인 선수와 임원 기자단 등 212개국 6,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대구육상선수권대회의 안전 관리 및 안전 활동은 모든 경기장을 물론 운영본부, 선수촌, 호텔, 대구공항 등 각각의 장소별로 이루어졌으며, 대테러 분야, 소방 분야, 전기 분야 등 각 분야별 또는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안전 활동을 하였다.

특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기존의 국내에서 치러진 대구모 행사들과는 다르게 국가정보원이 안전 확보를 주관하지 않았으며,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비상설 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구성한 후 안전 활동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역테러대책협의회는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대구지방경찰청 50사단,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등을 포함한 14개 관련 기관을 참여시켜 구성한 기구이다. 또한 지역테러대책협의회와 별도로 조직위원회 안전지원 단장을 실장으로 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는바, 위 상황실에서는 안전관련 상황 관리 및 긴급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의 운영을 위해 안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안전대책기구를 구성 후 VIP, 선수임원, IAAF Family, 미디어 등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였다(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2012).

또한 대구지방경찰청은 11년 2월 대회 치안 기획단을 발족하여 주요시설의 현장 점검, 경찰특공대 전술 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현장 실전훈련(FTX)을 주관하고 대회의 안전을 위한 대비 태세를 갖췄고 대회 임박 경기장, 선수촌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해 경찰, CP·전담시설경비대 및 대테러 특공대를 현장에 배치·운영하였다(강만성, 2013, 정환영, 2014).

4. 서울 G20 정상회담

서울 G20 정상회담이 있던 시기에 중동과 아프간 등에서 자주 테러가 발생하였고 정상회담 행사직전 파리와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 테러 경고가 빈번하게 있었으며, 한국에도 아프간 재 파병과 관련 탈레반 테러조직의 보복경고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 의해 자행된 천안함 포격사건이 있었던 시기라 다각적 테러 발생과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처가 요구되었다.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협 요소를 미리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 부처 합동으로 다중이용업소, 대형 공사현장, 대중교통시설 등 주요시설 5800여개에 대해 전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취약한 부분과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였고 개선활동을 하였다.

안전과 테러방지를 위해 활용된 장비는 얼굴 인식시스템과 RFID 시스템, 차량하부 검색기, 담장형 분리대, 다목적 철제바리케이드, 다목적 방패, 차량 무선전송 열영상 카메라, 전기 삼륜순찰차, 지하철 차단시설 등 다양한 장비를 개발·도입하여 안전업무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한국의 IT와 안전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켰다(정환영, 2013).

그동안의 올림픽에서의 일어났던 사건사고는 뭉헨 참사 이후 개최국은 물론이고 IOC의 철저한 사전 예방 조치와 만반의 준비로 올림픽대회 중 테러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한동안 없었다. 그러나 뭉헨 올림픽이 끝나고 약 40여년이 지난 지금 IOC에서는 대회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대회가 열리기전에 개최지 선정에서부터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개최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개최국은 반드시 대회전부터 국가안보와 테러 위협에 대비해 안전 대응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상황을 가정해 대응 훈련 및 실전 훈련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IOC와 개최국은 올림픽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2004 아테네 15억 달러, 2008 중국 베이징올림픽 65억 달러, 2010 밴쿠버 10억 달러, 2012런던 15억 달러, 2014 소치동계올림픽 20억 달러).

IV.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호·경비 위기관리 대응방안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테러의 대상은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는 범행 대상이 특정한 인물(VIP)에 대한 테러 또는 지정된 인물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불안함은 행사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비용의 투자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개최국은 위기관리를 필요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항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림픽의 경우 위협발생의 빈도는 높지 않지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험 감소를 위한 위기관리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위기관리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테러리즘일 것이다. 테러리즘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발생 시 손실이 가장 큰 중요한 위험요인임은 부정할 수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1년여도 남지 않은 이 기간에 평창 올림픽 위원회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대비함에 있어서 안전 담당관을 선정한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뿐 더러 그 규모조차 작다. 게다가 안전 대책에 있어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안전을 담보한 올림픽의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나라도 테러 등 안전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1. 대테러 전략의 변화 필요

최근 이슬람 IS조직의 테러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한 공포는 국제스포츠 행사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2013년 4월 15일에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대회에 대한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단체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뿐만 아니라 참가국과 참가선수 등 규모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소규모의 스포츠 행사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스포츠 행사

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최되고 있는 중소규모의 모든 스포츠행사를 포함하여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규모의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안전을 제일 순위에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올림픽을 포함 모든 행사의 안전 개최는 대회의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가고 있으며, IOC와 개최국은 개막과 폐막은 물론 대회 시작 전과 대회 기간 동안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위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처 그리고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테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보면 그 방법이 점차적으로 첨단화 되었고 테러 집단의 조직화, 지능화, 국제화로 진행되면서 대테러 전략에 수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의 인력중심 테러 대응 방법으로는 첨단화된 방법과 국제화된 테러조직을 사전에 파악하기 힘들고 다중인들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에서 많은 일반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 테러행위에 활용되고 있는 무형의 무기, 무색무취, 화학 관련 테러 수단들은 과거의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검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테러 대응과 전략적 수립과 대책 방안을 세워야 한다. 그 전략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에 국제 공조에 의한 테러조직의 동향을 사전에 공유 받고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야 될 것이며, 첨단기술 기반인 무인화 시스템, 스마트화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검색 및 감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대테러 및 안전대책 본부에서는 선수단 및 VIP가 이동하는 동선을 중심으로 경기장을 포함한 관련 모든 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경기장 마다 별도로 안전 관리실 및 경찰CP, 소방 CP, 그리고 민간 안전관리요원 CP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경기장시설의 특징에 따른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테러의 방법과 수단이 점점 첨단화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그 방법과 수단이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과거 1988년 올림픽과 2002월드컵이라는 메가급 국제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동계 올림픽개최를 위해 테러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의 첨단기술을 수용하고, 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체계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안전 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주체 및 안전대책 수립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는 시설과 선수, 관람객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에 ‘북한 위협’과 ‘테러 방지’를 이유로 대테러·안전대책 위원회 위원장으로 국정원장을 선임하도록 규정했었다. 또한 집행기구인 대테러·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역시 시행령에 따라 국정원 인천지부장이 맡았다. 그러나 올림픽과 같은 민간주도의 국제스포츠행사에는 대테러 업무 외에도 시설 경비, 교통 관리, 화재 예방, 재난·재해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 등 수많은 안전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북업무와 대테러 업무 등 대외적인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국가정보원이 관례적으로 담당해 왔던 안전 컨트롤타워 선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 당시, 유치위원회가 2010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대책 위원회와 그 아래 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안전관리통제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유치 위원회는 경찰 1만4,000명, 국정원 1,000명, 소방대원 및 의료진 각각 1,000명, 민간 안전요원 2,000명, 안전 자원봉사 5,000명 등 총 2만4,000명의 안전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안전대책위원장으로 국무총리가 아닌 국정원장으로 되어 있다. 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유치신청서와는 다르게 국정원장을 안전대책 책임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조직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경찰 조직이 안전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은 국제적 관례에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 결국 국정원장이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개최되는 많은 국제스포츠행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안전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국무총리에서 국정원장으로 그 격을 떨어뜨려 안전대책위원장을 교체하는 문제는 성급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대회 유치 과정에서 유치위원회가 IOC에 통보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신뢰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대회 유치시 안전 관리 및 안전 확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때 그 흐름을 역행하는 결정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으로 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경기장이 지리적으로 북한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가정보원장이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일정 부분 논리적 근거가 있으나, 동계 올림픽 기간 중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는 엄격한 의미에서 치안활동으로 치안활동은 경찰의 직무영역이며, 대회 기간 중 안전인력 가운데 약 60%이상의 인력을 파견하여 대테러·시설경비·교통 관리 등 광범위한 범위의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경찰력을 국가정보원장이 지휘, 감독한다는 점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대책 위원회와 그 아래에 경찰청장을 안전관리통제본부의 장으로 하며, 대북 관련정보와 해외 테러단체의 동향 등 대외적 정보는 국정원에서 맡아 제공하며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개·폐회식이 열리는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기장, 선수촌, 공항, 항만, 호텔 등에 대한 시설경비와 각국의 선수단 신변 보호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과 철도는 실시간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경기장과 선수촌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24시간 상시 감시 및 각 대회장마다 참석자의 개인 정보 실시간 대조 가능하며 확인될 수 있도록 생체인식방법을 사용하는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 등 스마트 보안환경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람과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 등 야외에서의 경기가 많은 대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재해 상황에서 위험 지역과 고립된 지역의 신속한 통신 서비스 시스템 제공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을 이용한 첨단 경비시스템의 도입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3. 민간 경호·경비 업체의 적극적인 활용

민간조직이 수행하는 국제적 스포츠행사에 국가경찰력 동원 및 지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가운데 발생될 수 있는 치안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국가경찰력 등 과도한 공권력의 동원은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

게 심리적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민간주도의 국제스포츠행사의 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민간경호경비분야의 적극적인 활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안전한 올림픽을 위해서 민간경비의 적극적인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1950년대 초에 시작된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은 약 4,000여개의 경비법인과 이에 종사하는 민간경비원의 수는 이미 150,000명을 상회하고 있어서 양적으로도 국가경찰력을 증가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엑스포 등 대규모의 국제적인 민간행사에 참여하여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첨단경비의 노하우 또한 축적하였다. 이렇듯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해온 민간경비업체에게 출입통제와 질서유지 등 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맡김으로써 민간주도의 국제적 행사가 한 층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후 개최되는 국제스포츠행사에 귀감이 되는 성공한 올림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계올림픽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체는 동계올림픽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맞는 안전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이미 동계올림픽의 경비를 담당했던 외국의 민간경비 사례를 연구하여 도입하고 개발해야 한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평창에서는 군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에게 총비상령이 내려지며 국가의 공권력이 총동원되겠지만 민간 자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보다 적극적인 범죄예방과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이루어 낼 것이다.

4. 민간 경비인력 및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강화

국제 행사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에 배치되는 안전요원들은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경비업법 제 13조 1항에 의거 배치 전 24시간에 걸친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후에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신입경비이수교육은 현장에서의 실제 업무와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교육이 많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제행사에 투입된 경비인력들을 살펴보면 많이 인력이 요구되는 현장 상황에 맞게 경험이 많은 인력도 투입이 되고 있지만 국제 행사인 만큼 많은 안전요

원에 필요한 행사에서는 경험자의 수보다 더 많은 무경험자들이 배치되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앞으로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기초교육만을 배울 수 있는 이수증 교육 외에 평창 동계올림픽 실정에 맞게끔 그동안의 국제행사의 문제점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안전 교육시켜야 할 것이며, 보다 현실성 있는 교육성과를 위해 현장 사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한 시청각교육으로 적절한 현장 교육을 실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각 경기장마다 담당 책임자 및 업체관계자들에게 행사장 지형지물에 대해 개별적인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숙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행사의 성공요인이 절대적인 안전진행에 있으므로 안전요원으로 배치되는 인력들에 대한 전문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제행사의 성공요인이 경기 진행시 안전 활동에 있으므로 반드시 행사에 안전관리 요원 배치에 있어서는 전국에 있는 국제행사의 경험이 많은 안전요원들을 우선순위로 배치해서 적절하게 잘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

5. 신속하고 유기적인 사전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성공적으로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흥적인 대처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제행사 실시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는 반복적으로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행사 준비 위원회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사전 정보교환과 각 기능별, 장소별로 분산된 안전 전문 인력을 통합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각 기관의 Hot-Line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협조체제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되고 추가되는 모든 사항을 분석하고 전달하는 활동 등의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국제행사에 있어서 안전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행사 사전안전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군, 국가정보원, 소방, 공항공사, 지하철공사, 해양경찰, 국제경찰 연락관실 및 각국 경찰기관 등과 같은 여러 유관기관의 협력과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전 안전대책 수립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은 물론 대규모 국제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안전관리 및 위기관리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발전을 토대로 전문적 인력 양성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설화시킬 필요가 있다.

V. 결 론

국제행사에 있어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대상은 특정인물이 아닌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행사 관람객이나 참가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사의 주최국에서는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안전 및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제행사의 주최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이에 각종 국제 행사를 많이 개최해온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하여 더 이상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을 버리고 동계올림픽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테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대테러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2013년 4월의 보스턴 국제마라톤대회에서 볼 수 있듯 테러에 대한 공포가 국제스포츠행사로 확산되고 있으며, 테러대상 또한 특정인물이 아닌 불특정 다수로 향하고 있다. 즉 테러의 방법과 수단이 다양화, 첨단화 되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선수단 및 VIP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모든 구역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각 경기장과 관람석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경찰과 소방, 안전 대책본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창올림픽 안전주체 및 안전대책의 수립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선정 당시에 유치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신청서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대책위원회와 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안전관리통제본부를 설치하고 유치위원회는 경찰 1만4,000명, 국정원 1,000명, 소방 및 의료진 1,000명, 민간 안전요원 2,000명, 자원봉사 5,000명 등 총 2만 4,000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으나 유치선정 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안전대책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아닌 국정원장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은 유치위원회가 IOC에 통보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 또한 있으며, 동계 올림픽 기간 중 안전을 확보하는 치안활동임무는 경찰의 직무영역이며, 대회 기간 중 안전인력 가운데 약 60%이상의 인력

을 경찰에서 파견하여 대테러·시설경비·교통 관리 등 광범위한 범위의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경찰력을 국가정보원장이 지휘, 감독한다는 점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경찰청장을 안전관리 통제본부장으로 하고 대분 관련 정보와 테러단체의 동향 등 대외정보는 국정원에서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람과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 등 야외에서의 경기가 많은 대회의 특성상 재난재해 상황에서 위험 지역이나 고립된 지역에서 상황발생 시 신속한 통신 서비스 제공과 실시간 감시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을 이용한 첨단 경비시스템의 도입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 경호·경비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은 약 4,000여개의 법인과 민간경비원의 수는 이미 150,000명을 상회하고 있어서 양적으로도 경찰력을 능가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엑스포 등 대규모의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첨단경비의 노하우 또한 축적하고 있다. 이렇듯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민간경비업체에게 출입통제와 질서유지 등 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맡김으로써 국제적 행사가 한 층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민간 경비인력 및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강화를 해야 한다. 국제행사의 안전은 대회의 성공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에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은 반드시 강화가 되어야 한다. 기존에 교육받지 이수증을 얻기 위한 기본적인 신입경비교육 외에 국제행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혹시 행사장에 있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동영상과 사진 등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다섯째, 신속하고 유기적인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행사 준비 위원회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사전 정보교환과 각 기능별, 장소별로 분산된 안전 전문 인력을 통합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각 기관의 Hot-Line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협조체제 및 상황에 따라 변경추가되는 사항을 분석하고 전달하는 활동 등의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강구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은 물론 대규모 국제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안전관리 및 위기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발전을 토대로 전문적 인력 양성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만성 (2013). 국제행사 물리적보안 시스템 설정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현 (2001). 경호학개론 백산출판사(서울), pp. 280-282.
- 김명신 (2008). 中,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도시별 안전 조치 잇달아.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김용현·박용주 (2011).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찰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 2호 pp. 77-96.
- 김태민 (2006). 한국 민간 경호업무 운용 시스템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재성·강남수 (2012).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위협 요인과 대책,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제5권 제3호, pp. 64-101
- 뉴데일리 (2015). 한국은 테러 무풍지대? ① 86년 김포공항 폭탄테러의 범인, <http://img.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33661>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2012).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백서-세계 속에 우뚝 선 대구, 대구: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 박동균·신익주 (2007).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 14호 PP 161-179.
- 박상원·김태희·장경로 (2008).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한 국민의식이 지지도 및 협력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9권 제1호.
- 변연하·김동선·김흥태 (2011).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안과 과제,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논문지, 제5권 제4호, pp: 129-137.
-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자료 (2014).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자료 훈령 예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http://www.mcst.go.kr/web/s_data/ord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1402
- 이상철·권정훈 (2004). 국제 행사시 경호안전 대책방안,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제 14집, 2호, pp. 1-27.
- 오태곤 (2006). 뉴테러리즘 시대 북한테러리즘에 관한 공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21집, pp. 369-392
- 오혁중 (2004). 아테네 올림픽 개최 비용과 경제적 효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옥광·김재수 (2011).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동북아시아의 정세,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5

권 제4호

- 위키백과 (2016). 뮌헨 올림픽 참사, https://ko.wikipedia.org/wiki/%EB%AE%8C%ED%97%A8_%EC%98%AC%EB%A6%BC%ED%94%BD_%EC%B0%B8%EC%82%AC#.EC9D.B4.EC.8A.A4.EB.9D.BC.EC.97.98.EC.9D.98_.EB.B3.B4.EB.B3.B5.EC.9E.91.EC.A0.84
- 연합뉴스 (20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7&oidn=001&aid=0000725625>.
- 조선일보 (200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9/2009021901415.html
- 정진호 · 유광희 (2013). 국제 스포츠행사에 대한 테러 사례분석과 최근 테러의 추세와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시큐리티경영학회지, 제2권 제1호, pp: 89-107.
- 정환영 (2013). 한국 민간경비업체의 국제행사 안전 활동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응렬 (2004). 대규모 국제행사시의 안전관리대책, 한국경찰학회보 제8권, pp. 22-26
- 황덕준 (1996). “폭탄테러·상업주의 얼룩진 ‘공포의 축제’ ; 애틀랜타올림픽 ‘허둥지둥 운영으로 근대 오륜 100년사에 먹칠’”. 『뉴스피플』 231: 32-33.
- Ritchie, J.R.B. & Smith, B.A.,(1991). The Impact of a Mega-Event on Host Region Awarenes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0 no.1, pp.3-10.

【Abstract】

**Safety and Risk Management Measures from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an International Event
(Safety and Risk Management Counter measures for
Pyeongchang Winter Olympics)**

Kim, Eun-Jung · Wang, Sug-Won

Terrorist organizations that take advantage of the occasion of international events are changing from targeting specified people to attacking general public, raising the anxiety of the audience and participating countries. Therefore, the host country intends to improve its status as the host by ensuring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at any cost. As a country with a wealth of experience of hosting international events, Korea takes the burden of the security at Pyeongchang Winter Olympics. Consequently, to successfully host this winter Olympics, the organizing committee should bear in mind that Korea is no longer a safe country regarding terrorist attacks and take countermeasures against various crimes and terrorism that may arise during the Winter Olympic Games. This study overviews various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change of counter-terrorism strategy is necessary. Second, the safety entity and safety measures for Pyeongchang Olympic Games should be established. Third, private security companie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ourth, the safety management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and safety personnel should be strengthened. La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apid and organic preemptive safety management system to cope with safety and crisis effectively at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other international events that will be held in the future.

Keywords: International event, terror, risk management, Pyeongchang Winter Olympics, safety measures